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영적 돌봄

박 남 규*

들어가는 말

세상은 점점 오염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수많은 불치병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몸이 조금 이상하여 병원에 찾아가면 꼭 감기 걸린 것처럼 “암입니다”란 선고를 받고 환자나 그 가족들은 우왕좌왕 하게 된다.

며칠 전 교회 내에 신실한 형제 한 분이 찾아와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이란 질병이 찾아와야 하며 도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고통스럽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다.

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15년 동안 하면서 이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환자들에게 영적인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재앙 같은 현실이 그들이 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됨을 알 수 있다.

1968년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출판한 「On Death and Dying(죽음의 시간)」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때 심리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를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5단계 즉,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큐블러 로스의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5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환자들 이 겪는 심리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성경 말씀과 찬송을 적용시킴으로 환자들 의 영적 돌봄을 감당하게 하여 투병을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이루게 하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학문적인 것을 주장하려는 것 보다 실제로 환자를 섬기는 현장에서 투병할 때 어떻게 환자들 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불확신 등을 복음의 능력으로 투병하며 섬기도록 할까하는 실천적인 면에서 기록하였다.

* 사랑의교회 호스피스 목사

본 론

1) 부정단계(denial)

자신이 암이나 불치병의 환자가 되었다는 예기치 않는 충격적인 소식에 “난 믿을 수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없어...” 등의 표현을 한다.

이때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진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자신의 기록이 다른 사람과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는 나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의지적으로 부정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부정의 단계란 믿기 어려운 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환자에게는 이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심각한 문제를 피하게 해 주며 서서히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가 되게 하여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섬김으로 일시적이지만 자기 방어 반응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간혹 이 시기 환자의 특징 중 하나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최초의 진단이 어찌면 잘못 되었는지 모르는 다는 희망에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들을 순례한다.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다보면 계속되는 진찰로 고통을 받고 탈진되거나, 경제적 소모, 환자의 불안과 가족들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성경에도 막 5장 26절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겪던 일 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虛費)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는 고통과 흡사한 일이 이 부정의 단계에서 일어 날 수 있다.

환자들의 병원 순례나 또는 상실감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주변에서는 꾸준한 사랑으로 환자에게 안위를 제공하며, 환자의 말을 경청해 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참 중요한 존재이며,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도록 섬겨야 한다.

먼저 환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부정 단계나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예레미야 29장 11-14절의 말씀을 적용 시킨다.

현실의 문제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도록 섬긴다.

그러기 위해 11절 말씀에서 환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재앙 같이 보이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할까, 성경에서 2가지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12절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선 먼저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환자 자신의 부르짖음의 간구를 통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이루신다는 신뢰를 갖도록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환자들의 품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도저히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나기에 긍정적인 믿음보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에서, 그래도 투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한다.

환자들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실상 즉,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소망이 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도록 권면해야 한다.

그 권면을 위해 히 11장6절의 말씀을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문제를 갖고 나오면 반드시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환자들에게 실상을 믿음을 통해 투병할 의욕을 갖도록 권면했다고 해서 바로 투병을 잘 감당하리라는 생각은 환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 자신에게 닥쳐오는 순간순간의 불확신 또는 불안, 염려, 공포가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투병하도록 사단이 놓아두질 않는다.

환자 자신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환자들은 자신의 투병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실패한 것 같은 평안과 소망을 다시 소유하도록, 환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투병을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아 29장 13절의 말씀과 14절의 초반부 말씀을 적용 시켜 준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레미아 29장14절 초반부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는 말씀을 적용시켜 준다.

하나님은 우릴 만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뜻하는 것이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포기과 절망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영적 싸움을 위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장 14절)”란 의미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왜 하나님께서 환자 자신을 위해 스스로 계셔서 찾아오시고 여호와가 되셔야 했는가를 말해 준다.

그 의미는 “그 환자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통해 그 환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자신의 낙심과 염려, 불안과 불확신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도록 섬긴다.

이 영적 전쟁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 통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저주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길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 분이 우리의 슬픔, 염려, 고통을 평화가 되게 하시며 우릴 위해 체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 된다면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인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부활 하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능력을 환자 자신에게 소개 시켜 주고,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내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말씀하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 환자 자신에게 적용시켜 줌으로 믿음을 갖고 영적 회복을 갖고 투병하도록 섬기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예레미아 29장 14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 즉 평안과 소망이 있는 “본곳(천국이 포함 된)”으로 돌아오는 투병을 환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특별히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은 환자의 육체적인 치료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섬

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셔서 안보하고 계심을 회복시켜 준다.

1절을 통해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자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또한 주님과 함께 투병할 수 있을 때 모든 투병과정이 2절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같은 투병이 이루어 질 것과 또한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을 확신 시켜 준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통해 투병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은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를 통해 투병할 의욕을 찾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과 함께 하는 찬송은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찬송가에 보면 제목 분류가 있는데 그 중 “인도와 보호, 은혜와 사랑, 신뢰와 확신, 시편과 극복” 등의 찬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찬송을 선택할 때 위의 분류 찬송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잘 감당하여 이겨낸 간증이 있는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간증이 있는 찬송은 후에 환자가 계속적으로 투병할 수 있는 힘과 또 은혜를 주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이때 들은 간증과 부른 찬송은 임종 때까지도 환자가 기억하는 찬송이 되기도 한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가의 가사와 내용을 마음속에 먼저 영상을 갖고 부르는 것도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2) 분노의 단계(anger)

환자들은 부정하던 마음의 갈등을 벗어나면서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

자신이 불치병으로 알려진 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처음 부정을 하던 심정 이상의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느낀다.

특별히 자신이 해결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 데 바로 죽음이란 것을 인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기 때문에 오는 감정의 변화를 간과해선 안된다.

변화는 자신도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와, 울화증 같은 감정이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른다.

그리고 자문을 한다. “왜 나야 하는가?”

특별히 암이란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사람은 한번은 죽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갈등에서 전혀 엉뚱하게도 자신의 주변에 대해 온갖 방향으로 자신의 혼란한 감정을 전이(轉移)하고 투사(投射)한다.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나? 라는 절규 속에 과민한 반응(혼란을 쉽게 분노로 터뜨리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섞인 질투, 일찍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을 나타낸다.

또, 이 분노는 환자 자신 속에서는 운명론(재수 없어서... 등의 표현 등을 쓴다)에 빠지나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상실감의 경험이 분노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족이나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처럼 자신 주변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적대감에 대한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환자를 볼 때 이때 환자의 폭발하는 과민한 반응을 환자 개인에게 “원래 성격이 어떻다”는 등 환자가 나타내는 반응에 대해 인격화 내지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 이해심을 갖고 기다리며, 그의 행동의 의미를 긍정로 용서하고 수용하여 환자의 무력감과 죄책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단계 환자에게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의 “...다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분노하는 환자라 해도, 포기하지 않

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소개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스피스 봉사자를 환자 자신에게 보내셨음은 하나님께서 환자 자신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환자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 시킨다.

그러기에 환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단정적으로 확신 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자를 보내심은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게 하는 일이며, 환자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회복 시켜 준다.

사실 4절과 5절 같은 현실이 우리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그 성은 부서지고, 시체만 가득한 곳이 되었듯이, 우리 환자들의 사정은 이와 흡사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 병과 싸워 보려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병이 자신을 함락 시키게 되고 그 성은 결국 무너진 상태로 남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뢰가 회복 되는 것을 통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성(城-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을 치료하시고 고쳐 놓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환자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고 소망을 갖고 투병하도록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환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게 해 줄때 환자는 그 분노에서 감사함으로 투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또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 그 형편과 환경에 도전을 줄 수 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배경이 설명 되어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도망을 할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왜 나여야 하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 밖의 형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는 자신을 다 싸고 있는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과 또 낙심하고 고개를 떨어뜨릴 때 마다 고개를 들어 주시는 전문가가 되셔서 자신의 낙심을 이기게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생명이 환자 자신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음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맡기고, 환자는 투병에 대한 의욕을 갖도록 섬기는 것이다.

다윗은 3절의 신앙고백 한 후 4-6절의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환자들도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

4절에서 1절과 2절의 낙심이 아니라 이젠 자기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며, 5절에서는 왕궁에서 자는 것 같은 평안한 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 6절에서는 이제 담대함으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행한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신앙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7절 초반부 같은 더 큰 낙심을 토로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이여 나를 구원주소서!” 절규에 가까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의 몸부림은 우리 환자들이 겪는 자신들의 고백이

아직 하나님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는 고통과 같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 몸부림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된다.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전쟁에서, 또 악한 사울의 위협에서 자신은 보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자신 문제는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노래한다.

우리 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아니면 지금까지도 비록 환자의 몸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돌아보아 그동안에 주셨던 복(은혜)을 세어 봄으로 예전부터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실 구원을 찬양 할 때 모든 분노와 낙심에서 벗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노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함께 부를 찬송은 제목 분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와 보호 등이 찾아 불러 보는 것도 좋다.

특별히 예수그리스도의 찬양을 부를 때 찬송 가사를 환자에게 설명해 주며 예수님의 환자를 사랑하심에 대해 영상으로 그려 줄 수 있다면 환자는 그 찬송을 통해 더욱 힘 있는 투병을 해 나갈 것이다.

분노의 단계에서의 찬송은 힘 있고 담대함으로 부르는 찬송이 더욱 도움이 된다.

3) 협상의 단계(bargaining)

환자들은 분노의 환경에서 분노만이 전부인 것을 알게 되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죄책감이 형성되며, 소망과 언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병이 치료되면 지금 보다 더 멋지게, 선한 일을 하며 살고 또 그 방법 중 하나 간혹 주의 종이 되

어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잠시 초인적인 능력이나 하나님과 타협하는 단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환자는 절대자인 신과의 타협 또는 맹세, 서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바라거나 또는 통증 또는 신체적 불편이 감소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한다.

이때부터가 환자나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다.

이 협상의 시기에 환자가 협상을 잘하면 환자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되고 또 간혹 삶의 기간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 시기부터는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유도하며 환자에게 육체적 치료만이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함을 주지시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며 절대적인 선택을 위해 섬긴다.

가끔 환자들은 이 시기에 선행과 헌신을 통해 생명 연장내지는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죽음을 보다 뒤로 미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여 그 해결책으로 운명이나 신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막무가내로 하려 한다.

이런 환자들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사이버 종교가 중에는 환자에게 치료를 미끼로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산 기부, 헌납을 종용받기도 하며 헛된 소망을 줌으로 자신의 사욕들을 채우려는 자들도 있다.

나는 이런 헛된 욕망을 연약한 환자들에게 불러 넣어 금품을 갈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볼 때 정말 경악스러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체험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도, 특별히 환자 사후에 사별관리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흥계로부터 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사별 가족들은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자가 투병하며 사용한 물질 때문에, 환자 사후에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들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협상의 단계에서는 환자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봉사자의 권면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기적의 치유와 소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기적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환자는 흥분되고, 믿음의 혼란을 갖게 되며 이런 문제는 환자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기 환자에게 너무 기적을 강조 하다 보면 몇 가지의 혼란을 갖게 되는 데;

- 1) 내게는 믿음이 부족한가?
- 2)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3)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 4) 내게 회개가 부족한가?
- 5) 더 많은 선행을 행해야 하는가? 등등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기적을 너무 강조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가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환자들에게 의사의 처방이나 도움, 의약품 포기, 영양식 포기, 금식 요구 등을 권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들에 대해 너무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환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협력과 의약품을 통한 보조와 영양식을 통해 육체의 균형이 유지 되지 못하면 그 고통과 통증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 특별히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물핀 등의 사용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통증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고통스러운 말기를 보내는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음도 환자를 위한 일이요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섬김의 사역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 내 믿음이 아닌 환자를 위한 믿음의 결단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

말기 상태가 되면 환자에게 무모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 협상의 단계의 중요한 부분은 환자는 자신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전부이기에 호스피스 봉사자는 예민하게 또 그러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통증부위나 불편한 부위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만져주고 쓸어주는 스킨 쉽(skin-ship)도 이때부터는 필요하며,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발맞지 같은 섬김도 좋은 결과를 갖게 되지만, 믿음을 통한 안찰 등은 환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에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환자는 이 시기에 자주 회개의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기에 환자 자신의 기도생활을 권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환자들에게는 협상을 하는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은 민수기 13장 26절부터 14장 9절을 통해 보면,

민13장 26-27절에서 그들은 처음에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준비 되어 주신 땅이라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28절 이하에 그 땅을 탐지할 때 보았던 그 환경과 자신의 두려움이 엉키어 결국 32절에 자신들이 보았던 땅에 대해 “악평”하며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낙담처럼 정탐한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이란 세월 속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뚜기같이(민 13장 33절) 그 땅에 스러지는 것이다(민 14장 33절-37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9절을 통

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의 기뻐하심을 통해 그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며,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선포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불려들임을 받은 자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

협상의 단계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이 환자에게 담대함을 주지를 못한다.

이 시기의 환자에게는 감추어진 두려움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통한 신앙고백을 다시 하도록 섬길 때 환자는 투병의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이사야 40장 27-31절 등을 통해 환자의 신앙고백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27에서는 자신들의 고통을 끝없이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회복함으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기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仰望)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을 확신시켜 준다.

이때부터는 함께 부를 찬송은 환자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선택하면 더욱 좋고 반복적으로 불러도 좋다.

환자 자신이 자신의 찬송이 없다면 제목분류: 회개와 사죄, 신뢰와 확신, 기도와 간구, 주와 동행, 소망 등이 좋다.

4) 우울의 단계(depression)

환자가 자신의 병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쇠약해지면 극도의 상실감을 겪게 될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다.

우울 단계에 다다르면 환자들은 움직이거나 활동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부하니까 하며 그냥 그들을 버려두면 환자 자신을 사회적인 죽음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

환자가 거부해도 지지해 주고 또 위로해 주며, 자꾸만 활동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그의 활동을 도와주며, 가능한 햇볕을 많이 쬐일 수 있도록 해주고, 일상적인 환자복이 아니라 환자의 의상의 색깔 등을 조금은 화려한 색으로 바꾸어 주도록 한다.

1993년도 호주와 뉴질랜드 호스피스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 그들의 병원들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그동안 가졌던 나의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병실에서 일상적인 의복을 입고 있는 환자들, 병실에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환자가 키우는 세퍼드 성견(犬) 그리고 담배를 피우며 삼삼오오 모여 장기들을 두고 있었고, 몇몇 병실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새 초롱이 있어 자신들이 돌보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에게 자신의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입원한 병원은 그들의 남은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준비하는 교제의 장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울 보다는 지금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를 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들을 위한 그렇게 섬기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도는 배려하고 싶은 광경이었다.

또 환자들은 특별히 이때가 되면 고독감을 느끼고, 우울과 비탄이 형성된 환자 자신에게 많은 긍정적인 배려를 통해 실내가 아닌 외부 출입을 하도록 섬긴다.

우울 상태의 많은 환자들이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라는 생각을 통해 죽음이 투쟁의 대상에서 자기 애도로 바뀌며, 이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해지고 깊은 묵상이나 천정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애도의 상태가 깊어져 심한 우울증이 될 경우 간혹 자살의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공포, 염려를 갖고 있다. 특별히 우울의 상태에 들어가면 환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영적인 돌봄의 수준을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우울에서 소망으로).

그 방법으로 환자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천국에 관해서는 체험적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은 환자보다도 호스피스 자신이 더 확실해야 한다.

우울의 상태가 되면 죽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며, 공허한 위안의 말보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주는 이심전심의 관계가 환자와 접촉점(rapport)을 갖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환자가 극도의 상실감과 비통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는 방문객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죽음을 수용하려는 감정적 준비 상태를 방해받지 못 하도록 한다.

또 예를 들어 협상의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난날 환자 자신이 소망과 확신에 찻던 말이나 행동을 회상하도록 격려해 주고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특히 협상 단계 때 했던 말이나 행동을 호스피스 자신이 기록 보관해 두었다면 이때 꽤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환자가 이때 작은 영적 변화가 있다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시기에는 가족들에게도 약간의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자 가족에게도 배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적용할 성경은 시편 121편 1-8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우편(우편의 의미는 2가지로 표현 할 수 있는데, 가깝다는 표현과 강하게라는 표현이다)에서 그들이 되심으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도 못하게, 밤의 달이 날 해치 못하도록(밤에는 기온이 떨어짐으로 많은 맹수나 각종 뱀들로부터의 위험에서)

언제나 가까이에서 뿐 아니라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심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 확인 되어 지도록 섬긴다.

이 지키심은 나를 어떤 환란에서도 그 환란에서 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은 환자 자신이 자신의 우울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환자들이 현재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도록 섬긴다.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의 발아래 평평하고 아주 넓은 반석이 되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며, 또 나의 요새가 되셔서 어떤 적(病魔)으로부터도 함락당하지 않을 보호를 주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로 계시기에 나를 수령(病魔)에서 건지시기 위해 내어 뺀 손을 붙잡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섬기며, 나의 하나님님이 되시므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과 권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환자에게 언제나 그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심도 고백할 수 있으며, 또 나의 피할 바위로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을 통해 그 뒤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신다.

또,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 자신이 그 방패가 되시는 한 나의 생명은 보존됨을 믿기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사라는 사실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투병에만 전념하도록 권면하며, 구원의 뿔(2가지의 의미가 있다. 구원의 뿔은 성막 안에 있을 때 어떤 잘못에서든 그 잘못을 용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모든 죄 사함과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부는 나팔이 구원의 뿔이었다. 그러기에 환자가 투병하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나팔을 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한다)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며, 산성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염려 불안 등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을 평안함이 있는 성을 상징한다면 모든 환자의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을 맡기며 누릴 수 있다.

이때 시편 18편 3절의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病魔)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신앙고백이 이루어 지도록 섬긴다.

이들과 함께 부를 찬송의 제목분류: 천국, 인도와 보호, 소망, 평안과 위로 등에서 환자 자신에게 잘 적용 될 수 있는 찬송을 부르되 특별히 천국에 관한 찬송을 부르며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함으로 함께 찬송을 불러 섬긴다.

5) 수용=용납의 단계(acceptance)

환자들이 자신의 운명에 더 분노하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 단계로 지나간 감정들을 이야기 하거나 사랑했던 사람들과 정들었던 장소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는 시기다.

이때 환자들은 대부분 지치고 쇠약해져 무감동, 무기력이 형성되고, 이젠 무엇이 더 필요 하리, 더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며 대부분 부정적인 수용이 온다.

이때 대부분 일어나는 부정적인 수용을 긍정적인 수용으로 바꿔 주어야 함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수용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면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치료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더욱 악화를 반복한다.

수용의 단계에서는 간혹 진통제의 양이 줄어들기도 하며, 관심세계가 좁아져서 외부세계의 소식이나 복잡성을 싫어한다.

수용의 단계에서는 요한일서 4장 7-13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상대가 있다면 용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 단계에서 많은 용서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함께 적용이 가능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11절을 통해 참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음으로 절로 열매를 맺게 됨을 강조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투병하도록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최후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 좋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 제목 분류: 예수 그리스도, 분투와 승리, 속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결 론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독일 신부이신 알폰스 데젠 박사는 여기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단계를 더 추가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통해 환자가 사후에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991년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영적인 케어를 한다면 굳이 새로운 단계가 아닌 언제나 큐블러 로스가 말하는 5단계에서 그 단계 마다 결국은 평안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환자의 마지막 삶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자존감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단계들에 대해 기계적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모든 환자들이 꼭 이렇게 순서적으로 5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한 단계가 거의 오랜 시간 지속되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상태에야 변화가 있기도 하기에 우리가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단계마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작업이었다.

항상 환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나의 믿음의 용량에 따라 오지 못한다 하여 그들을 판단하다보면 영적 돌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환자들에 대한 심방 때 가끔 병실에서 부흥회 같은 심방이 일어남을 본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병실 안에는 보통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오는 피해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최대한 환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히 그들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할 때가 많다. 환자가 고통 받고 낙심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일 것이라는 생각이 환자들에게 투병할 의욕을 꺾어 버린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고백하며 섬긴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환자 한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그 가족들이 영혼의 기로에 설 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가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자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사별관리를 통해 남겨진 자들도 지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로운 환경의 적응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호스피스의 역할이며 사명이다.

사랑의교회 호스피스 홈페이지는
<http://hospice.sarang.org> 입니다.